

머릿말

族譜의 意義와 族譜의 發展過程 뿌리없는 나무가 없고 근원없는 물이 없드시 사람도 누구

나 다 祖先이 있고 그 祖先의 피는 끊임없이 흘러서 한결같이 그 子孫들의 血管속에 흐

르고 있나니 誰敢히 이를 否認하리오 나만이 그런것이 아니라 數千數萬의 子孫이 다 그

러할진대 族譜를 하는일은 곧 自身들의 핏줄을 찾는作業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 作業

에는 반드시 子孫個個人이 한사람 빠짐없이 다같이 參與하여야 하며 또 努力하여야 할것이

다. 그러나 境遇에 따라서는 그렇지못한이도 있으니 恨스럽도다. 族譜라함은 곧 그 氏族의

歷史이니 나라에는 國乘 즉 國史가 있고 私家에는 家乘이 있어 내려왔으니 이는 人類文明과

더불어 自然發生한것이요 어떤 한사람의 獨創이라고 할수는 없는것이다 人類가 文字를 사

용하게 되므로부터 記事를 하게되었고 記事를 하므로부터 歷史가 始作되었으니 그날의 記

事은 곧 그날의 歷史이며 아비 자식 손자의 이름은 곧 그사람의 世系인것이다. 그러므로

歷史가 오랜民族은 반드시 文明이 일찍 發達한 民族이니 우리가 저 中國의 漢民族을 가

르켜서 古代文明國이라함도 곧 그 關係이다 옛날 中國史家司馬遷도 文字以前의 人類史를 말

할때에는 「在書契以前 年代國都不可攷」라하여 人類文化圈外로 돌리었다. 그리고 歷史를 쓸때

에는 반드시 歷代帝王의 本記를 叙述하여서 世系를 밝히었고 또 그밖에 世家는 世家대로

의 列傳이 있었고 따라서 그만한 士族間에도 또한 그 나름대로의 家乘이 있었으니 이

렇게볼때에 族譜의 發生過程은 人類社會의 發展과 더불어 歷史的使命으로 같이있었다 할것이다. 家乘과 家牒과 族譜의 區別 家乘과 家牒과 族譜는 비록 같은 性質의 것이로되 그範圍와 規模에 따라서 相異하나니 家乘이라함은 한집안의 歷史的事實을 적은 책을 말한것이고 家牒이라함은 한집안의 世系를 기록한 譜牒이고 族譜라함은 여러집안의 譜牒을 한데 엮어 모아 世數와 昭穆을 統一한 譜冊을 이름이니 즉 同族間의 譜라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高麗朝까지도 同族間에 族譜를 한일이 없다. 다만 家乘과 家牒이 있었을 뿐이다. 朝鮮明宗十七年 壬戌(明嘉靖四十一年)에 비로소 文化柳氏의 嘉靖譜가 있었으니 이것이 우리나라 族譜의 처음이다. 그뒤에도 同族間의 族譜는 그리 흔하지 못하였다. 뒤에 兵役을 常人이 担當하게되자 이를 꺼리는 士族間에서 族譜하는 바람이 漸次 일기 始作하였고 또 이로因하여 家門의 자랑으로하였으니 大概肅宗 朝以後의 일이다.

우리 咸安李氏는 咸州의 土族으로 멀리 伽倻時代로부터 千數百年동안에 文武良材를 많이輩出하여 겨레에 이바지한 國內望族이다. 그러나 李朝中葉에 있었던 士禍와 壬辰倭寇의 酷毒한 慘禍를 입어 子孫이 各處로 離散되고 孱微하여져서 다시는 옛날의 家風을 振作시키지 못하였다. 그런 關係로 先代事蹟에 關한 文獻을 모두 遺失하고 甚至於 家牒等에 이르기까지도 保全한집이 드문듯하니 어찌 寒心치 않으리오. 이러한 事情은 正祖純祖年間에 咸安宗親 守寬澤寬甫等이 先世의 事蹟을 찾기爲하여 一生을두고 京鄉各地를 遍遊하여 蒐輯한 文籍(忠烈公實記其他)等을 보아서든지 正祖十六年 壬子에 安城宗親春發甫가 最初로 試圖하였던 壬子譜

라든지 또는 高宗四年丁卯에 發刊한 丁卯譜의 錯誤된 世代로因하여 大正十一年壬戌 大同譜
 時에 嶺南葦溪精舍에서 오랫동안 兩派(嶺南 畿湖)가 相持하였다는 事實等으로 미루어 보아서 這間
 의 事情을 十分 짐작할바이다. 萬一 그 當時에 文獻의 可徵할바가 남아 있었던들 어찌 그
 러한 事態에 이르렀으리오. 可嘆可惜하다. 그러나 壬戌譜는 至今으로부터 이미 五十七年前
 에 그런대로 끝을 맺었다. 그러나 그 餘震은 至今까지에도 가시지않고 남아있다. 이는 무
 엇이나하면 즉 當時의 先公들이 先系에 對하여 充分한 解明을 남겨주지 못한채 他界한것
 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至今에와서도 이에 對하여 釋然치못한 마음을가진 後孫들이 여럿있
 으매 안타까운마음 禁할길 없도다.

今般不肖等の 淺識한 幾個人이 修譜業務를 担当하게되매 이 問題에 關하여 적잖은 礙路
 를 느끼면서 또 後孫들에게까지 宿題를 넘기기싫은 마음에서 猥濫되게 이미 잠드신 先公
 들을 代하여 解明하고자 하는바이다. 問題의 原因은 古家牒에 있는 忠烈公以上 三代(希賢
 蕃 士剛)를 丁卯譜와 壬戌譜에서 削除하고 家牒과 丁卯譜의 稱字以下 四代(元叙 湯就 光
 柱 龍起)를 遠祖로 別途取扱한데 있다.

忠烈公麗朝年數圖에 據하면 忠烈公은 高麗忠烈王二十四年 西紀一二九八年戊戌에 生하여 恭
 愍王十一年 西紀一三六二年壬寅에 遇害하였으니 享年은 六十五歲이다. 麗史列傳과 金羅錄에
 公의 遇害時에 子仲文은 年甫十餘라 하였으니 判書公諱仲文은 恭愍王二年 西紀一三五三年癸
 巳生ियो 卒年은 恭讓王三年 西紀一三九一年 辛未이니 享年은 三十九이고 靜齋公諱穎은 李

太祖三年 西紀一三九四年 甲戌에 文科하였으니 自判書公生年 癸巳로 至甲戌은 四十二年이요 自卒年辛未로 至甲戌은 不過四年이니 이만 사이에 一代도 어렵거든 하물며 四五代가 무슨 말인가. 이는 分明히 家牒과 丁卯譜의 錯誤인즉 壬戌譜때의 處事가 가장 賢明하였던 것이 다. 壬戌譜前에 楊州宗人世系譜에도 이미 그러한 先例가 있었으니 何等疑心할바 없다. 下의別紙를 參考하기 바란다.

다음 家牒에 보이는 忠烈公以上 三代(希賢 蕃 士剛)는 이러하다. 姓譜咸安李氏條에 보면 版圖判書公諱源은 一本士江이라 하였으니 姓譜와 古家牒이 同一함을 알수가 있다. 그런즉 家牒의 士剛은 곧 姓譜의 士江일지니 剛과 江은 同音이요 江과 源은 그 義가 同一하니 더욱 心證이 굳어진다. 또 姓譜에는 源은 蕃의 子라하였고 舊譜에는 源은 尙의 子라하였으니 蕃과 尙은 異名同一人임이 分明하다. 또 古人은 名字를 여럿으로 行用하였으니 例를들면 判書公芮도 幼諱中文 初諱仲文이요 朝鮮太祖李成桂도 一名旦이요 圃隱鄭夢周도 初名夢蘭이니 이와같은 例等이다. 이러하거든 尙字一名이 蕃이라하여 何等의 妄發될일도 없다. 또 이렇게도 말하리라 蕃은 職銜이 禮賓同正인데 尙은 光祿大夫巴山君이 아니냐고 그러나 壬戌譜版圖判書公名下註에 「追崇三代」라 하였으니 光祿大夫巴山君은 곧 아들 源의 勳功으로 追崇을 받은 職銜이라 할것이다. 이러한 例는 더욱이 많다. 副正公諱季通도 아들인 襄簡公의 勳功으로 純忠補祚功臣咸城君을 追贈받은바 있다. 다만 畿湖의 忠義公派에서는 追崇前의 禮賓同正公諱蕃으로 家牒에 실었고 嶺南의 侍郎公派에서는 追崇後의

光祿大夫諱尙으로 族譜에 실은것이라 할것이다. 이러한 內容을 모르면 疑心하는것도 當然한 일이다. 또 侍郎公諱淸과 版圖判書公諱源의 昭穆에 對하여서도 云云하는이가 있으나 溯源譜에 보면 版圖判書公諱源名下註에 「一云與淸爲兄弟」라고 하였다. 위에 이미 말한바와같이 古人들은 家牒等을 다만 直系爲主로 하였기때문에 兄弟나 其他傍系를 記錄하지 않았으니 이 事實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高麗軍簿僉正公諱希賢에 對하여는 새삼 舉論하지 않는것이 좋을가한다. 다만 지금까지 疑問하였던 点만 解消되면 더 以上 滿足이 없을것이다. 끝으로 壬戌譜當時에 애써주신 諸公께서 이러한 事實을 알고 물랐음은 別問題로하고 다만 그 勞苦에 對하여는 깊이 感謝올리는바이다. 以上의 問題에 關하여는 添付된 別紙를 參照하기 바란다.

다음은 侍郎公派와 忠義派의 兩派間에 修譜한 略史를 圖表로 供覽하니 參考하기바란다.

侍郎公派修譜表

譜名	年代	別	備考
壬戌譜	純祖二年壬戌	西紀一八〇二年	第一回
甲寅譜	哲宗五年甲寅	西紀一八五四年	
丙申譜	高宗二十二年丙申	西紀一八九六年	
壬戌譜	大正十一年壬戌	西紀一九一二年	
癸巳譜	光復九年癸巳	西紀一九五三年	
派譜			
大同譜			

忠義公派修譜表

譜名	年代	別	備考
壬子譜	正祖十六年壬子	西紀一七九二年	春發氏單譜
丁卯譜	高宗四年丁卯	西紀一八六七年	七卷
壬戌譜	大正十一年壬戌	西紀一九一二年	九卷
丙申譜	光復十二年丙申	西紀一九一六年	三卷
戊午譜	光復三十四年戊午	西紀一九四八年	三卷洋裝
派譜			
大同譜			

우리나라의 族譜史에 關하여는 이미 위에 言及한바 있거니와 吾李는 三韓의 古族이기는

하나 忠烈公遇害後로부터 또는 累次の 士禍와 兵亂을 겪고 子孫이 辱微하여져서 옛날 家
 風을 挽回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族譜하는일도 他姓에 比하여 많이 뒤졌음은 그만큼 勢力
 이 微弱하였던 關係라하겠다. 그러므로 過去の 記錄에 依하면 그 當時의 諸公들도 마음이
 不足한바 아니로되 다만 力不贍한 關係로 苦心慘淡하였던 事情은 진실로 눈물겨운일이 많
 다. 吾族의 譜事가 正祖十六年壬子에 安城의 經歷公派春發氏로부터 龍仁에서 始하였으나 이
 는 이름만인 單卷譜에 不過하였고 그로부터 十八年後인 純祖乙巳에 金堤舍人公派 達龍氏와
 林川宣務郎公派 秉默氏等の 여러章甫가 피나는 勞力으로 韓山에 譜閣을두고 일하던 途中에
 不意의 火災로 單牒과 其他錢財一切을 모두 불태우고 다시 再起하지 못하였다. 其後五十九
 年만인 高宗四年丁卯에 林川の 章燮甫가 主動이되어 持平公墓舍에다 譜閣을두고 다시 譜事
 를 始作하여 一邊收單 一邊募金으로 오직 速成만을 目標로하여 不過三個月에 原譜四卷과 誌
 牒三卷 合七卷의 譜事를 成就하였다 世上이 바뀌어 그뒤다시 五十五年만인 大正十一年壬戌에
 嶺南侍郎公派의 秉銑氏와 畿湖忠義公派의 弘燮氏가 서로提携하고 固城葦溪精舍에서 歷史的인
 大同譜事를 發足하였으나 先系의 錯誤로 말미아마 오랫동안 相持하던 끝에 結局重刊壬戌譜와
 같이 落著을 보게된것이다 그러나 忠義公派의 畿湖側에서는 不平이 많았다 그餘震이 지금
 까지도 가시지못하여 말성이 不無하다 이를 마음아프게 생각하여 不肖等이 業務推進過程에
 서 各種文獻을 熟攷한 끝에 以上과如한 終論에 到達하였으니 바라건대 僉宗께서는 저희들의
 輕卒함을 탓하기 前에 깊은探究있기를 바라며 다시 이러한事實을 證하기爲하여 丁卯壬戌兩
 譜序跋文中 參考될것만을 翻譯하여 添付하였으니 一讀있기를 바라며 끝으로 物心兩面으로 協
 助하여주시 僉宗에게 깊은謝意를 드리는바이다

一九七八年十一月 日

咸安李氏忠義公族派譜編纂委員會謹書

古傳家牒 咸安李氏世系

始祖

李希賢

正憲大夫 贈上將軍
配全州崔氏○墓在咸安

二世

子蕃

資憲大夫 贈上將軍
配慶州金氏○配在咸安

三世

子士剛

嘉善大夫 贈上將軍
配慶州金氏○墓在咸安

四世

子芳實

麗朝元師金紫光祿大
夫中書平章政事與安
祐金得培舉破紅巾賊
賜推誠協輔功臣號○
配晉陽姜氏左代言存
之女○墓加平郡西面
榛洞西坐原

五世

子仲文

文科雲觀使判書○配
坡平尹氏父受禎○墓
上同辛坐原

六世

子穉

武科保義將軍雄武侍
衛大護軍○配全州李
氏安邊府使鍾之女○
墓上同亥坐原

穉

子元叙

麗朝衛尉主簿尚書○
配光山金氏○墓上同
卯坐

子湯就

都染令通政大夫○配
慶州李氏○墓上同辛
坐原

子光柱

都官散郎 贈通訓大
夫兼兵曹參議○配
耽津柳氏○墓上同坤
坐

子龍起

典法正郎密直府使
○配羅州吳氏奉翊大
夫定國之女○墓上同
酉坐原

子穎

文科司諫院左正言知
側教○配清州韓氏奉
訓大夫判典客寺事光
漢之女○墓上同辛坐
原

始祖

李芳實

金紫光祿大夫中書平
章事從高麗忠穆王時
擊破紅巾賊 賜推誠
協輔功臣事載海東樂
府及麗史配享麻田崇
義殿○配晉州姜氏父
左代言存○墓加平西

二世

子仲文

文雲觀使判書○配坡
平尹氏父受禎○墓上
同辛坐原

三世

子穉

武保義將軍雄武侍衛
大護軍○配全州李氏
父安邊府使鍾○墓上
同辛坐原

四世

子元叙

衛尉主簿同正○配墓
失傳

五世

子湯就

都染令○配墓失傳

六世

子光柱

都官散郎配墓失傳

婿周英贊

草溪人

面榛洞卯向原○配靈山辛氏父右散騎珣

光柱

七世

子龍起

典法正郎○配羅州吳氏父奉翊大夫密直府使定國○墓威安

八世

子穎

司諫院左正言知制誥○配清州韓氏父奉訓大夫判典客寺事光漢○墓上同

九世

子禎

贈司僕寺正行戶曹佐郎○配耽津俞氏父中訓大夫三司左尹寶○墓上同

十世

子興孫

贈通政大夫兵曹參議行司宰監副正○配淑夫人順興安氏父奉訓大夫行狼川縣監以康○墓上同

十一世

子季通

字達而贈嘉善大夫史曹參判兼弘文館提學同知義禁府事純忠補祚功臣封咸城君行司宰監副正○正統四年世宗二十二年己未生咸宗二十三年辛亥十月二日卒○配貞夫人全州柳氏父郭山郡守孟沂○墓廣州慶安面中里靈長山子坐原

壬戌大同譜咸安李氏世譜卷之一

李元叙

高麗衛尉主簿同正○見姓譜

子湯就

都染令

子光柱

都官散郎

子龍起

典法正郎○配羅州吳氏父奉翊大夫密直副使定國

中祖

二世

尚

子清

光祿大奎封巴山君

門下侍郎同平章事

三世

子弘

侍中

四世

子滋秀

儉校護軍

五世

子云吉

直講有文兼有武麗季防禦虛疎外寇侵軼公

六世

子隲

恭愍朝癸卯生十五中進士十八文科守大邱